

'국가예산 확보' 선제 행보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취임 전부터 기획예산처 예산실 등 방문해 협조 요청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양 당선인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16일 밝혔다.

양 당선인은 16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을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부처 대응에 나선 것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시장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16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을 방문해 조용범 예산실장을 만나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양 당선인은 기획예산처 예산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00억 원), △연립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 원),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설립(640억 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80억 원), △국립관소리 산업 복합단지 조성(490억 원), △임안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242억 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1,170억

원) 등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사매면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하드웨어를 문화, 의료, 교육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2단계 공모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양충모 당선인은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 부 근무 경험과 예산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남원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걸음더 앞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장직 인수위, 주요 업무보고

시 보건소·농업기술센터 현안 사업·향후 추진 방향 등 논의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시민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고부가가

치 선진농업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 농촌 활력 증진 사업 등을 보고했다. 양 당선인은 "시민의 건강은 무엇보다

도 바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의료돌봄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은 남원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며,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농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생명산업을 남원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쟁력 있는 농업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이 물리치료실 운영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신체 기능 유지 지원에 나섰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요통과 관절통,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관은 생활권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을 마련, 건강상담과 물리치료를 연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온열치료와 ICT 전기치료 등 기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이며, 현장 접수와 예약제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축타의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축타의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물리치료 적합 여부를 판단한 뒤 진료기록지를 발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축타의 방문 진료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월 1회 운영되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유추진

임실군, 23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신청·접수

임실군이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하반기 시설원예와 동절기 재배작물의 수확 시기에 맞춰 우수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영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은 접수 기한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임실군은 올해 상반기 추진을 통해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현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총 356명중 27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했다.

이를 위해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돼 무단이탈 가능성이 낮고 근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초청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과 그 배우자이며, 입국 및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 건강하고 농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만 28



세 이상 만 38세 이하의 근로가능자가 대상이다.

특히 임실군은 단순히 인원만 채우는 선발에서 벗어나, 현장 농가들의 현실적인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선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경험이 있어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 현장 지시를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현재 본국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현장의 시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관내 농가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초청 농가는 근로자가 체류 기간 동안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독립된 적정 숙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준수 등 대한민국 노동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군은 향후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엄격한 심사 및 선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도내 3위'

순창군이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종 순위 도내 3위,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도내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창군은 매년 정량지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시 단위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정성지표 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종평가에서는 도내 하위권에 머무르는 아쉬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올해 초부터 합동평가 추진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64개 정량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수와 부군수 주재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우수 추진부

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직원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정성평가 분야에서도 군정 전반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완성도 높음으로 도내 작성에 힘쓴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정성평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며 최종 순위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노력도 분야에서는 기존 감점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만점을 획득했다.

이처럼 정량·정성·노력도 전 분야 전체에 걸친 성과를 거두며 전년 대비 총점이 크게 상승했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내 종합평가에서 목표했던 중상위권을 넘어 도내 3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달성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순창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에 나섰다.

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와 물류비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체다.

신청된 기업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물류비의 50%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이다.

다만 비제조업체와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국제·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상생포럼' 개최

임실군은 최근, 오수창의마을공작소 공연장과 오수지구 일원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상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의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재생 전문가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첫날에는 임실군 도시재생 추진현황 및 주요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을 통한 전북지역 균형발전 및 해외 도시재생 사례와 전북지역 적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